

# LME, PP · LLDPE 선물가격 조정

런던금속거래소, 2004년 말 취급개시 ... 2005년에는 5품목으로 확대

구리와 알루미늄 등 비철금속만 거래되고 있는 런던금속거래소(LME)에서 2004년 말부터 플라스틱도 거래된다.

LME는 “LME의 127년 역사상 처음으로 비철금속이 아닌 플라스틱 선물(Futures)을 취급하기로 결정했다”고 3월31일 발표했다.

LME는 우선 2004년 말에 PP(Polypropylene) 및 LLDPE(Linear-Low Density Polyethylene) 등 2개 플라스틱제품의 거래를 개시한 후, 2005년에는 5개 품목으로 늘리기로 했다.

LME의 시몬 힐 최고경영자(CEO)는 “세계 플라스틱 시장규모 한해 1200억달러로 모든 비철금속을 다 합친 것과 비슷할 만큼 거대하고 플라스틱이 자동차와 필름 포장재 등 수많은 공산품의 재료로 사용되는 필수 원자재인 만큼 거래품목에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금속이 아닌 플라스틱을 취급한다고 해서 거래소 명칭을 바꿀 계획은 없다고 덧붙였다.

LME는 플라스틱 가격을 달러화로 표시하며, 최장 15개월물까지 취급할 계획이다.

플라스틱 선물은 대부분 실물의 인수·인도 없이 매입·매도가격 차이를 정산하는 방법으로 처리된다.

그러나 일부 실수요자는 앤트워프(벨기에), 로테르담(네덜란드), 휴스턴(미국), 싱가포르 등 4곳에서 플라스틱을 직접 인도받을 수 있다.

<화학저널 2004/04/02>